

총·칼·도끼 능수능란... "액션 직접 소화했죠"

기획·액션·디자인까지 직접 참여
복싱·절권도로 단련 "아직 짱짱"
액션 좋아하지만 장르 고집 안해
다음엔 김종국 섭외...맘껏 칠 것

평소에도 진지하기로 유명한 장혁(45)이 액션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심오하게 풀어냈다. 기획뿐만 아니라 액션 디자인까지 참여한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제작 ㈜아센디오)를 통해서다. 그만큼 장혁이 작정하고 액션을 담았다. 13일 개봉하는 영화에서 그는 극중 납치된 여고생 소녀를 찾기 위해 거대 범죄 조직과 맞서는 은퇴한 킬러를 연기한다. 총기 물론 칼, 도끼 등 각종 무기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며 배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액션을 직접 소화했다. 실제로 그는 10년 넘게 복싱과 절권도를 연마하며 몸을 만들었다.

6일 서울 삼청동에서 만난 장혁은 "13구역", '엽문', '레이드' 등 해외 액션 영화에서 돌보았던 '원신 원컷'의 액션 시퀀스에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테이큰', '아저씨' 등에서 선보인 '납치된 소녀를 구하는 킬러'라는 유사한 캐릭터에 대해서는 '쿨'하게 인정하며 "인물관의 관계에서 유머를 가미해 차별화를 주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 "액션 찍다 기절했던 과거, 지금은 달라"

장혁은 "액션 퍼포먼스"를 최우선으로 드러내기 위해 "서사와 스토리는 단순화"했다. 아시아 대표 액션스타 청룡(성룡)의



배우 장혁이 주연은 물론 기획과 액션 디자인까지 맡은 영화 '더 킬러: 죽어도 되는 아이' 개봉을 앞두고 사진제공 | ㈜아센디오

영화에서 받은 영향 때문이었다.

"스토리는 동기부여 정도로 심플하게 짜이지만 액션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말한 청룡의 인터뷰를 보며 많이 공감했어. 원작 웹소설에선 액션보다는 소녀와 킬러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영화에서는 액션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죠."

"복싱, 절권도 등 각종 운동과 훈련"으로 체력을 유지하고 있다. 30대보다 체력 저하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액션

하기 젊은 나이"라 믿는다. 오히려 "체계적인 현장시스템" 덕에 과거보다 "훨씬 안전한 액션"을 펼칠 수 있게 됐다.

"화산고"(2001) 촬영 때만 해도 안전 장비가 미흡했어. 액션 중 기절만 7~8번 했을 정도죠. 와이어 액션을 할 때 더 정밀하게 계산한 게 아니라 인력으로 밀어붙였어. 지금은 굉장히 안전하죠. 이번에는 창문을 깨고 나가는 장면에서 창문틀에 머리를 부딪치기는 했지만

만 고강도의 액션이 많았던 현장치고 안전사고가 거의 없었어요."

● "가수 TJ 활동, 미련 없는 좋은 추억"

평소 절친한 차태현과 손현주를 직접 카메라로 섭외했다. 현재 기획·구상 중인 다음 영화에는 "김종국을 꼭 출연시킬 생각"이다. "대사는 '욱! 욱!' 일 뿐 일 거예요. 제가 많이 때릴 거거든요"라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액션에 언제나 진심"인 그이지만 '액션배우로만' 남을 생각은 없다. "장르에 한계를 두고 싶진 않다"는 그는 "다양한 장르의 연기를 해보야 연기의 폭도 넓어진다. 내 생활 속 모든 루틴은 다양한 연기를 위해 소진되지 않는 재료를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2000년 'TJ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래퍼 활동을 했던 것 역시 "배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말했다. "뮤직비디오를 통해 배우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이 유행했던 시기"이었던 만큼 "직접 부른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자신을 보여주고자 했다.

"당시 가요 프로그램 무대에 서지 않으면 방송사에서 뮤직비디오를 내보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무대까지 서게 됐죠. 관중이 7만 명이나 모인 콘서트 무대에 오른 적이 있는데 엄청난 환호소리를 들어도 느낌이 오지 않았어요. 연기를 할 때는 늘 기쁨이든 두려움이든 떨리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때 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동네 한 바퀴, 잘 들고 떠납니다"

(K1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진행자 김영철 4년 만에 하차
"재충전한 뒤 본업 연기에 매진"



김영철

배우 김영철(69)이 4년 동안 지켜온 KBS 1TV 교양프로그램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를 떠나며 "그저 섭섭하다"고 말했다. 그는 9일 방송을 끝으로 하차한다.

김영철은 2018년 7월 18일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전국을 누벼왔다. 그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작은 골목길과 주택가를 천천히 걸으면서 주민들과 인생사를 이야기했고, 때로는 즉석에서 동네 맛집을 추천 받아 손님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했다.

1973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진행자로 나선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애착도 크다. 그는 6일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마지막 방송을 앞두고 섭섭하다"면서 "시청자들과 더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없다는 게 아쉽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휴대전화 너머로 담담한 목소리와 함께 짙은 아쉬움이 묻어났다. 그러나 프로그램 하차는 "본업인 배우를 위해" 내린 결정이다. 다양한 지역과 도시를 찾아가는 포맷 특성상 일주일에 3일가량을 촬영에 쏟아야 하는 점이 한계로 작용했다. 특히 5월 종영한 KBS 1TV 사극 '태종 이방원'을 촬영하며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껴 제작진에 하차의 뜻을 전달했다.

프로그램을 항상 "배움의 터전"으로 강조해온 그는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에 따르는 것뿐이다"며 "그간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돌아섰다. 이후에는 "당분간 재충전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영철은 "배우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며 "좋은 작품을 만나면 그동안처럼 매끄럽게 표현해내겠다"고 웃었다.

한편 '동네 한 바퀴'는 16일 스페셜 방송 이후 23일 시즌2로 재정비한다. 씨름선수 출신 방송인 이만기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블랙핑크 내달 컴백...연말까지 월드투어

걸그룹 블랙핑크가 8월 컴백한다.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블랙핑크가 새 앨범 녹음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조만간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후 내달 신곡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말까지 케이(K)팝 걸그룹 사상 최대 규모의 월드투어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블랙핑크가 그룹 활동에 나서지는 것은 2020년 10월 정규 1집 '디 앨범' 발매 이후 1년 10개월만이다. 이들은 정규 1집으로 140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케이팝 걸그룹 최초로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다.

김연경, 유재석과 넷플 예능 첫 고정출연

방송인 유재석과 배우 김연경, 배우 이광수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콘텐츠 '코리아 넘버원'을 내놓는다. 넷플릭스는 6일 "세 사람이 장인을 찾아가 전통 노동을 체험하는 모습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전통의 매력과 노동의 가치를 전할 예정이다. 김연경은 이번 콘텐츠를 통해 예능 포맷에 첫 고정 출연한다. JTBC '슈가맨', tvN '일로만난 사이' 등을 만든 정효민 PD가 제작사 스튜디오 모다를 설립하고 처음 제작하는 콘텐츠다.

에스파, 유엔서 '지속가능한 발전' 연설

걸그룹 에스파가 유엔 포럼에서 미래세대 대표로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독려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에스파는 6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 회의장에서 개최된 '2022 지속가능발전 고위급 포럼'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제로 연설했다. 멤버 지젤은 자신들을 "메타버스 걸그룹"으로 소개하며 "현실이 고갈되지만 하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가상 세계(메타버스)의 무한한 가능성 역시 지키기 어렵다"면서 "다음 세대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8일 두 번째 미니앨범 '걸스'를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발매한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자체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변호사 박은빈(가운데)의 이야기를 담아 시청자들의 호기심과 공감을 동시에 끌어 모으고 있다. 사진제공 | ENA

'우영우' 인기몰이...제2 '굿닥터' 예약

천재 자폐 변호사 활약 그린 법정물
2회 만에 화제성 1위·넷플 국내 2위

자폐 장애를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은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지난달 29일 첫 방송해 2회 만에 각종 화제성 차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면서 화제몰이를 시작했다. 특히 5살에 자폐 진단을 받은 뒤 변호사 우영우(박은빈)의 성장 과정을 그려면서 장애를 가진 인물을 섬세하게 그리고 그에 대한 편견을 깨는 호평을 끌어내면서 사회적 관심도 불러일으키고 있다.

드라마는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진 우영우가 대형 로펌의 신입으로 입사해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평소에는 어수룩하지만, 법정에서는 "이의 있습니다!"를 당당하게 외치며 천재성을 드러내는 캐릭터다. 다른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인물을 타인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 힘든 모습으로 묘사한 것과 다르다.

의료 전문위원인 김병건 나사렛대 유아 특수교육과 교수가 캐릭터 디자인 작업부터 참여해 이야기를 완성한 덕분이다. 연출자 유인식 PD와 극본을 쓴 문지연 작가는 핵심 요소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다채로운 시각으로 담기 위해 제작 초기인

지난해 여름부터 김 교수와 1년간 긴밀하게 소통해왔다.

김병건 교수는 6일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자폐증을 가진 미국의 유명한 동물학자 템플 그랜디 등을 모델 삼았다"면서 "법정에서는 자신 있게 말하되, 일상적인 대화에서 자폐적인 특성을 나타내도록 연기의 톤을 나눴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나오기 어려운 인물이지만, 같은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들은 드라마 방송 이후 각종 SNS를 통해 "희망을 느낀다"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김 교수는 "나 또한 장애를 가진 아들을 키우는 부모"라면서 "많은 환자들이 드라마를 통해 힘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드라마는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날 OTT 콘텐츠 추천 사이트 키노라이츠의 통합 랭킹 1위, 넷플릭스 한국 2위에 올랐다. 화제성조사회사 굿데이터코퍼레이션이 발표한 6월 5주 차(6월 27일~3일) 차트에서는 드라마와 출연자 화제성 분야에서 정상에 올랐다.

드라마는 웹툰으로도 제작된다.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제작돼 하반기 글로벌 시장에 공개할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다시 문천 배철수·구창모...송골매, 40년 만에 전국투어 콘서트

송골매 배철수와 구창모가 6일 서울 마포구 신현플레이스 스퀘어에서 진행된 '2022 송골매 전국 투어 콘서트: 열망' 제작발표회에서 "설렘도 있지만 걱정도 크다"며 40년 만에 다시 문천 소감을 전했다. 송골매의 대표곡 '모두 다 사랑하리'와 '세상만사'를 각각 리메이크하는 밴드 전·비와 엑소 수호도 함께 지리해 콘서트 개최를 응원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배철수, 전·비 리더 최정훈, 수호, 구창모. 김동원 기자 won@donga.com

배우 황보라, 김용건·하정우 가족 된다

소속사 김영훈 대표와 11월 결혼
10년 열애... "행복하게 잘 살게요"

배우 황보라(39)와 배우 출신이자 연예 기획사 워크하우스컴퍼니 김영훈 대표(42)가 11월 6일 결혼한다. 김 대표는 배우 김용건의 둘째 아들로, 하정우(김성훈)의 동생이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 비공개로 결혼식을 올린다. 황보라와 김 대표는 2012년 교회에서 처음 만나 10년 연인으로 발전해 서로에 대한 애정과 믿음으로 10년째 공개 열애 중이다.

황보라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결혼 소식을 알렸다. 그는 "11월 오랫동안 함께해 온 저의 동반자와 결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긴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의 축복이 있었기에 함께할 수 있었다. 행복하게 잘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이 소속된 워크하우스컴퍼니도 보도자료를



황보라

를 통해 "따뜻한 축하와 축복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3년 SBS 10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한 황보라는 드라마 '미스터 백', '육사남정기', '배가본드', '달리와 감자탕' 등과 영화 '더 폰', '허삼관', '1급기밀', '어쩌다 결혼' 등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다. 현재 iHQ 예능 '격정말아요 그대, 변호의 신'에 출연 중이다.

김영훈 대표는 2009년 KBS 2TV '전설의 고향'에서 차현우라는 예명으로 배우로 활동했다. 드라마 '로드 넘버원', '대풍수'와 영화 '퍼펙트 게임', '수상한 고객들', '이웃사람' 등에 출연했다. 현재는 하정우와 연인 황보라를 포함해 최정훈, 백승현, 문유강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사 워크하우스컴퍼니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